

# 닭띠 소고 (小考)



이 정 연

(천호부화장 송우사업소)

간지(干支)란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로 이루어지는데 민정사 발행 梁柱東 감수 민중 국어 대사전에는 십간(十干)은 천간(天干), 곧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의 총칭이며 십이지(十二支)는 12개의 지지(地支), 곧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총칭이라 설명되어 있다.

지나지 않고 편의상 나열해 놓은감이 든다.

그런데 먼저의 분류에서 보았듯이 유독 조류와 파충류가 1가지씩 포함되어 있는데 눈여겨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은 이는 두종류가 모두 난생(卵生)이라는 점이다.

뱀이야 구약성서 창세기에서부터 사악의 상징

쥐 띠



소 띠



범 띠



토끼 띠



따라서 그 어느 누가 십이지에 동물을 대입시키면서 띠라는 부산물을 부여하여 전래해온 것인데 상상의 동물인 용(龍)과 우리나라에서는 야생하지 않는 원숭이가 끼어 있는 점을 보아 중국 남부 지방에서 유래하여 한반도에 수입되지 않았나 유추할 수 밖에 없다.

더우기 전기한 두종류의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류하여 보면 포유류가 8가지, 조류 1가지 파충류 1가지임을 알 수 있고 그중에서 가축 및 가금류가 대종을 이루고 있음은 인간과 매우 가까운 동물 가운데서 선별한 감이 짙다.

항간에는 경주에 참가한 動物中에 선착순에 의해 순서가 정하여졌다고는 하나 근거없는 우화에

으로 대표되어 있고 인간의 속성이 기어가고 꿈틀거리는 벌레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일단 파충류는 접어두고 조류(鳥類), 즉 닭에 대하여 관심을 표(表)하기로 한다.

각설하고 닭에 관한 전설을 잠시 더듬어 보면 신라시대의 경주 김씨 시조 김알지의 난생설화와, 삼국지(三國地)에 한사람의 죽음을 불러 일으키는 조조의 계륙(鷄肋)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지명에 산재해 있는 鷄林, 鷄龍山, 飛鷄, 等等 심지어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한다'라는 속담에서 마저 닭에 얽힌 이야기는 우리들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필자의 국민학교 2학년생 딸아이가 이따금씩 "전통치닭골 마마"라는 해괴한 낱말을 외쳐대며

킁킁거리는 사연마저 범주에 넣는다면 의아해 하시는 독자들에게 이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일요일 엄마를 따라 시장에 다녀온 딸아가 저녁 밥상에서 수수께끼 같은 낱말을 내놓았는데 그말이 곧 "전통치닭골 마마"라 하여 저녁을 먹던 식구들은 아연해질 수 밖에...

헌데 사연인즉 시장 어귀 튀김집 유리창에 쓰여진 글자가

"전기구이. 통닭. 치킨. 닭고기. 골뱅이. 마른 오징어. 마른 안주." 라는 것으로써 가로쓰기를 착각하고 頭書만 읽어보니 어휘가 재미있어 시체 말로 웃긴다는 것이었다. 허지만 유심히 분석해

용 띠



뱀 띠



보면 거의가 닭에 對한 異名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닭띠 소고(小考)가 닭 小考로 둔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쏟아놓은 물이니 주워담을 수도 없는 노릇. 따라서 필자가 닭띠라는 사족(蛇足)을 첨언할 수 밖에...

매스컴에서 간혹 접하는 기사 가운데 동물원 측의 재미있는 호명법을 접하곤 하는데 이를테면 S대공원의 돌고래는 "돌"자 돌림의 이름이고, Y자연농원의 호랑이와 원숭이는 "호"자 돌림이나 "원"자 돌림의 이름을 붙인 내용이다. 이름이란 본래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쉬우면 족한 것이니 나무랄 일이 아닌듯 싶은데 한수 더든 경우는姓

말 띠



까지 부여한 경우가 있으니 이는 삼시간에 핵심을 찌른 거사이다. 그것도 우리 주변에서 제일 쉽게

# 雪 夜

김 성 애 (학 생)

佳姬의 속살처럼

순결함이어

그대 곁에 사랑을 묻어 두노니

날 머나먼 異國의 방랑자로

잊혀지지 않게 하여라

心中的 言約은

호흡이 멎을 만큼

애뜻하게

소름소름 내려앉는 눈송이만큼

빠른 知覺으로

스치우고 가는데.....

하늘

하늘을 우러르면

텅빈 가슴은

아무런 말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만이 남아

새하얀 설경 속으로 묻혀간다.

당신만의 마음을

나만이 알 수 있는

雪夜의 그리움은

가슴저미도록

그대 곁으로 날아가고 있다.

접할 수 있는 닭에게 말이다.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도 될만큼 신기하고 경천동지할 노릇이다.

유사이래 최초로 성을 갖게된 닭은 슬하에 남매

양 띠



원숭이띠



를 두었는데 馬氏姓에 당대의 돌림자가 많을瀾자로 정했다니 기가 찬 일이다. 사내 아이에게는 건강하게 잘크라고 “瀾巨”군. 계집아이에게는 자식 잘나고 예쁘게 자라라고 “瀾娜”양, 문중(門中) 회의 끝에 낙찰된 이름이다.

하여튼 작금에 와서는 그들 남매의 유명도가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심지어 외국까지도 휩쓰는 판이라 필자가 몸담고 있는 이곳 C부화장에서는 그들 남매의 이름을 심볼로 정하고 자랑스럽게 키우

고 있으니 이는 닭띠의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 남매의 뒷바라지를 위해 혼신을 기울이고 진자리 마른자리를 밤낮으로 갈아주며 상할 세라 애지중지 아끼는 이곳 C부화장 직원들을 접할 때마다 자못 성스러움이 느껴지는데 이는 비교우위에 있음을 대견스럽게 여김이 아닐까?

개 띠



돼지 띠



어떻든 C부화장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끝으로 두서없는 글을 이만 줄이고 이놈들의 이름이나 하늘높이 외쳐보자.

“馬瀾巨!

“馬瀾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중추·대추** 만을 전문으로 육성하고 있는 저희 농원에서는 끊임없는 연구, 노력으로 귀하의 수익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육성계전문사육장

**삼 정 농 원**

**중추, 대추 (위탁사육 및 주문사육환영)**

농 장 : 경기도 광주군 오폐면 양벌리 612번지

전 화 : 62-4339(DDD 0347)

※ 간이연락처 : 퓨리나사료 광주서비스업소(2-2558)